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2018년도 전교인 수련회
지난 주 전교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PCA 가을 노회 안내
PCA 한인 동북부 노회가 9월 11일(화)에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 가을 학기 성경공부 안내
9월 둘째 주부터(13일) 크로스웨이 성경공부 반이 다시 시작됩니다.
- 한글학교 안내
9월 8일(토)부터 한글학교를 시작합니다.
시간: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12시 30분 3개 학급으로 운영
- 이번 주 친교음식은 최홍만(김유순)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다음 주부터 구역 별로 진행됩니다.

8,9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8/26	섭	권이남	최홍만,김유순	한순자
9/02	송명건	김유순	베이사이드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주일학교	주일 오후 1:15	친교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방학 중)	목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주일설교요약

제목 : 귀한 여인 귀한 믿음

본문 : 열왕기하 4장 25~37절

기도제목 : 1.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실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2.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추어지게 하소서.
3.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큰 일을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더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 인격 그리고 내면의 모습이 좋은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속이 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분노해야 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 수넬 여인은 그런 면에서 아주 귀한 여인이었고 귀한 믿음의 여인,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귀한 여인 귀한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 수넬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수넬여인은 어렵게 얻은 자식이 죽은 어려운 순간에도, 이 수넬 여인은 이 일에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누굴 원망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수넬 여인의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넬 여인과 같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말과 행실로 내 생간을 그 순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내 뱉었던 말,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 그 시간이 지나간 후에 얼마나 후회를 하게 됩니까? 수넬 여인은 자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수넬 여인의 귀한 모습이었고 귀한 믿음이었습니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수넬 여인이 겪었던 고난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수넬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왜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물론 이 이야기는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수넬 여인의 경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성경에서도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사업을 접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이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만나는 사건 사고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넬 여인이 고통 속에서 귀한 모습을 놓치지 않았던 모습은 그가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은 상황에서 수넬 여인이 생각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남편의 말도, 주변 사람의 말에도 신경 쓰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신중하게 찾아가는 수넬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수넬 여인이 초점 맞추어 찾아갔던 사람이 엘리사였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 예수님이십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출 수 있는 귀한 사람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수넬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중심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죽은 아이를 안고 방에 놓혀 놓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도움으로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아이를 다시 안고 그 방을 나아가는 수넬 여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방을 들어 올 때, 죽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그 모습과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이번에는 살아있는 아이를 안고 그 방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때의 수넬 여인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중의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겪고 있는 이런 저런 괴로운 일들로 인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님! 생각하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메어 달리세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 올 때는 죽어 있는 것들이, 나날 때에는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 주일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헌금

* 지난 주는 수련회 관계로 다음 주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차인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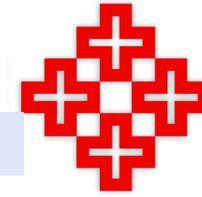
Address: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18년 8월 26일

주일예배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말씀 / 정요한 목사 (베드로후서 강해) 기도: 권이남 집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임재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0번(시편139편)	
찬 송 Hymn	363장	
기 도(Prayer)	송 섭 집사	
성 경 Scripture	열왕기하 4장 25~37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귀한 여인 귀한 믿음	토요 새벽기도회
▲ 헌 금 Offering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도행전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찬 송 Hymn	465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